

P R I V I L E G E

LOTTE Hotels & Resorts Membership Magazine_May 2016



STILL LIFE IN CERAMICS

Of all ceramic products on display at last year's Maison & Objet, the ones by the Italian ceramic artist Paola Paronetto drew the biggest spotlight. Paronetto's pieces are conventional and traditional at their core, but they're also quite modern in their simplicity and stillness. Her unique, creative works come in paper clay.



PAOLA PARONETTO PAPER CLAY 2015 CARTOCCI COLLECTION BOTTLES ©MARCO AUBER

기다란 나무 테이블 위에 사물들이 놓여 있다. 유약을 바른 흰 꽃이 잎맥을 뺀으며 개화 중이고, 흙의 얼굴을 한 버섯은 수줍게 부풀어 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연출하듯 솟아오른 화병들도 보인다. 모두 무채색 화면 안에 말없이 존재하며 그 침묵의 공간 안에 영혼의 시간을 재듯 먼지들이 서성인다. 이탈리아 출신의 어느 도예가가 부려놓은 사물의 풍경에 고스란히 겹치는 것이 있다면 역시 이탈리아 출신의 정물화가 조르조 모란디Giorgio Morandi의 화풍이다. 테이블보 위에 껌과 접시, 물병 따위를 올려놓은 그림인데, 혼한 일상의 사물이 저희들끼리 모여 뿔어내는 말없음의 공기가 맑아 있고 무심하게 칠한 쓸쓸한 색들도 마찬가지로. 꽃을 꽃는 화병이고 과일이나 음식을 담아내는 오목한 그릇이자 쟁반이지만, 어딘지 저 홀로 생명력을 지닌 예술품 같기도 하고 고고한 군상들의 은유 같기도 하다. 손때 묻고 물에 씻길 생활 속 물건들이지만 눈으로만 훑쳐봐야 할 것 같은 오라Aura도 풍긴다. 움직이지 않는 정물, 말하지 않는 사물이지만 분명 자신들만의 시간을 새기고 있는 유물들이다.

**파올라 파로네토,
현대 도자 예술의 가능성을 말하다**

이탈리아 도예가 파올라 파로네토Paola Paronetto의 세라믹 작품은 현대 도예의 예술성과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전통 방식에 자신만의 재료와 심미안으로 다듬어낸

화병이며 트레이, 볼 등 생활용품은 그 자체로 공간을 장식하는 오브제로도 손색없다. 지난 2월 파리에서 열린 메종 오브제Maison&Objet에서 선보인 ‘카르토치Cartocci’ 시리즈는 아네모네 꽃송이의 가녀린 잎맥까지 살려냈고, 햇빛 아래 피어난 튜립의 다소곳한 정서를 부려놓았다. 여기에 비정형으로 솟아오른 버섯 모양의 트레이까지 더하면 그녀가 펼쳐놓은 오브제들은 흡사 비밀스러운 숲의 풍경을 옮겨놓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누군가는 점토에 종이를 섞어 만든 페이퍼 클레이Paper Clay 방식을 사용한 그녀의 작업이 “자연과 단순함에서 드러나는 깊은 미감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라고 평하기도 했는데, 세라믹 작품 특유의 시간 그리고 불과의 싸움이 깃들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파올라 파로네토는 1965년생, 이탈리아 북부의 포르테노네Pordenone 출신이다. 열여덟 살 때부터 점토 작업을 시작했고, 30년이 넘는 작업 기간 내내 이어온 솔한 실험과 반복의 결과물을 다양한 전시를 통해 발표했으며, 현재는 유명한 세라믹 학교인 라 메르디아나 스쿨La Merdiana School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그녀의 작업은 단순함을 추구하는 시대의 디자인 미학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 단순함만이 그녀의 작업을 설명하는 열쇠는 아니다. 스스로도 열렬한 전통 옹호자라는 고백답게 실제 작업에서도 전통적 재료와 방법을 고수한다. 그의 작품은 비싼 클레이를



PAOLA PARONETTO PAPER CLAY 2016 CARTOCCI COLLECTION TRAY & LAMPS ©MARCO AUBER



사용하고, 높은 온도의 불로 말리고, 자연을 표현하는 질감으로 장식하고, 유약을 바르는 등 고급 기술이 필요한 몇몇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그녀는 고대의 점토 기술과 라쿠Raku 기법을 자유분방하게 사용한다. 여기서 라쿠는 '불사르는 것의 즐거움'이란 뜻으로, 1000°C 내외로 구운 도자기를 가마에서 꺼낸 다음 곧바로 툽팍이나 짚 등 다른 물질을 넣어 환원시키거나 물을 넣어 빠르게 냉각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냉각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우연의 효과, 즉 독특하고 즉흥적인 결과물들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점토에 종이를 섞은 페이퍼 클레이의 미학

파로네토는 6년 전부터 페이퍼 클레이라는 작업 방식에 빠져 있다. 도자기의 일반적인 표면이 지루해졌고 그동안의 작업과는 전혀 다른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표면을 원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점토에 펄프나 종이, 마분지 등을 섞어 만드는 페이퍼 클레이는 그녀에게 독창적인 표면을 선사했으며, 더 가볍지만 견고해서 파손률도 훨씬 적은 데다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종이류에 들어간 셀룰로오스 성분 덕분이기도 한데, 이 셀룰로오스 성분이 재료의 강도를 높이고 자연스러운 광택을 만들어낸다. 또 셀룰로오스 특유의 삼투성은 작업 시간을 줄여줄 뿐 아니라 불의 온도에 따라 얼마든지 우연

적인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장점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화덕을 여는 순간 실례는 감정을 느끼며 매번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고백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페이퍼 클레이 작업에서 작업의 절차와 불로 말리는 온도는 다른 점토 작업과 동일하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골판지 표면과 같은 주름 잡힌 물결 모양은 불에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지며, 이는 첫 번째 가마에서 나온 후 산화되고 두 번째 가마 안에서 견고해진다. 사실 그녀의 작업 방식은 비밀에 감춰져 있다. 그녀의 작업을 홍보하고 있는 사비네 슈바이거Sabine Schweiger에 따르면 그녀는 고향 포르레노네의 외곽에 자리 잡은 소박한 전원의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하기를 즐기며,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파로네토는 한 매체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자신만의 팁을 살짝 공개하기도 했는데, 점토에는 어떤 재료를 섞어도 상관없지만 점토와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또 그녀는 건조 과정에서 유약, 금, 백금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연이 빚은 초현실적 조형미

파올라 파로네토 페이퍼 클레이의 정점에 있는 '카르토치' 시리즈에서도 알 수 있듯 파로네토만의 작업 특징은 단순하면서도 섬세하게 3차원의 공간미를 연출하는 조형미와 표면의 독창적인

PAOLA PARONETTO PAPER CLAY 2016 CARTOCCI COLLECTION YELLOW & GREEN COLOR ©MARCO AUBER



문양 그리고 공들여 입힌 색깔이다. 때로 파로네 토는 흥미로운 물리적 외관을 보여주기 위해 초 별 작업들을 단순하면서도 진한 나무 프레임 안에 집어넣기도 한다. 오버사이즈로 제작한 화병들이 그렇다. 색의 향연은 그녀의 새로운 시리즈에서 보다 확실해졌는데, 인상적인 점은 흰색과 회색을 오가는 무채색 계열에서 벗어나 샛노랑과 짙은 파랑까지 한 푸른색이 섞여 있으면서도 전혀 요란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색을 입히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거대한 손길이 대담하게 눌러버린 듯한 색의 기운은 생동감보다는 정지된 사물로서의 운명에 순응하는 느낌이다. 램프 같은 기능에 충실한 작품도 있다. 하지만 천장에서 내려온 파올라 파로네토의 램프 역시 가만히 그녀의 트레이를 비추는 순간, 온전히 파로네토표 작품의 기운에 흡일되고 속해버린다. 금박이나 은박을 입히고 특별한 문자를 새긴 작품들은 전통적 수공예인 데칼코마니 같은 새로운 시도하는 것을 즐기는 작가의 실험 정신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파올라 파로네토의 작품은 조형물로서의 특징을 겸비한 덕분에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입체감을 선사한다. 골판지의 두터운 빗금들로 표현한 아네모네와 튤립 모양의 볼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순간 이파리가 풍성한 자랑하는 여름철 나무 같아 보이고, 좁은 입구에 길쭉하게 뻗은 화병은 '스카이 라인Sky Line'이라는 이름 그대로 도심 속 마천루를 연상시킨다. 오버사이즈 제품들은 날렵한 실루엣이 외려 육중하면서도 견고한 이미지를 풍긴다. 누군가 표현한 것처럼 '진공 상태의 현대성'을 획득한 제품들의 '초현실적 실루엣' 그대로다. 때때로 자연에서 온 영감의 질료들은 이처럼 놀랍고 이질적인 생명을 잉태하곤 한다.



PAOLA PARONETTO PAPER CLAY 2016 CARTOCCI COLLECTION
TULIPS & ANEMONES ©MARCO AUBER

COOPERATION WWW.PAOILA-PARONETTO.COM